

‘돌풍’ 광주FC, 일본 챔피언 고베 잡고 사우디행



16강 2차전 3-0 승...K리그팀 중 유일 ACLE 8강
박정인 선제골...아사니, 후반·연장서 2골 몰아쳐

프로축구 광주FC가 일본 프로축구 J1리그 챔피언 비셀 고베를 잡고 ACLE 8강에 올랐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비셀 고베를 3-0으로 꺾고 2024-2025 ACLE 8강에 진출했다.

당초 지난 5일 열린 16강 1차전에서 0-2로 패해 탈락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후반을 2-0으로 마치고 연장전에서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의 결승골로 최종 승자가 됐다.

구단 창단 이래 첫 ACLE 출전임에도 16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던 광주는 이제 8강에 올라 사우디에서 경기를 치른다. 역대 시·도민 구단 최초이자 올해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이뤄낸 성과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박정인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아사니, 이강현, 박태준, 오후성을 배치했고 후방은 김진호, 조성권, 민상기, 이민기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고베를 상대로 초반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보여준 1차전과 달리 이날 광주는 공 점유율을 일찍부터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가져왔다. 전반을 62.1%의 공 점유율로 마친 광주는 슈팅 5개와 유효슈팅 3개를 기록하며 고베를 압도했다. 광주가 기록한 세 차례의 유효슈팅 중 하나가 박정인의 선제골이었다.

전반 18분 프리킥 상황 박태준의 크로스가 문전에서 고베 수비진과 경합하던 박정인에게 넘어갔다. 박정인은 그대로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 그대로 상대 골키퍼 미에카와 다이아의 연계를 넘겨 고베의 골망을 갈랐다.

광주는 전반 34분에도 기회가 찾아왔다. 헤이스가 오후성과 2대1 패스로 수비를 따돌린 후 문전에서 최상의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상대 주장 아마카와 데쓰시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세를 탄 광주는 후반에도 주도권을 유지한

채 공격을 퍼부었다.

아사니와 헤이스는 좌우 측면을 흔들면서 뒷공간을 만들었고, 폴백들이 침투해 크로스를 올렸으나 상대 수비진이 너무 두터웠다. 후반 20분과 21분, 27분에 연달아 나온 헤이스의 중거리, 조성권의 헤더, 아사니의 중거리 모두 유효슈팅이었지만 상대 마에카와의 선방에 막혔다.

좀처럼 포문이 열리지 않자 이정호 감독은 후반 32분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주세종을 투입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꾸준하게 몰아치던 광주는 후반 40분 추가 골을 터트렸다.

상대 페널티박스에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고, 아사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1-2차전 합계 점수 2-2로 균형을 맞췄다.

한편 득점포를 가동한 아사니는 막을 수 없었다. 아사니는 연장에서 광주의 8강행 티켓까지 쏘아 올렸다.

연장 후반 13분 상대 페널티박스 인근에서 벌어진 상대 수비진 공간 사이로 그림 같은 왼발 중거리 슈트를 때렸다. 이 공은 골대 상단 끝을 정확히 가르면서 광주가 3-0을 완성했다. 이후 남은 추가시간에서 양 팀 모두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광주가 극적인 8강행에 올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K리그1 무패 행진 잇는다

16일 김천종합운동장서 김천전...“4월까지 리그 집중”



아시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 4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한다.

광주FC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김천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1·2라운드 수원FC와 전북현대를 상대로 각각 0-0,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1일 멀티골을 기록한 아사니의 맹활약에 힘입어 FC안양을 2-1로 꺾고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당시 아사니는 후반 88분까지 동점이던 경기의 균형을 깨는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로 광주에 승점 3점을 선물했다.

이달 첫 경기에서 기본 좋은 출발을 알린 광주는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2차전 비셀 고베와의 경기에서 정점을 찍었다. 1차전 0-2로 패하며 8강행을 위해 3골이 필요했던 광주는 이날 박정인의 선제 헤더골, 아사니의 극적인 멀티골을 더해 시도민구단 최초 ACLE 8강 진출이란 대업을 이뤘다.

120분 연장 혈투에 지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광주 선수단의 의지는 불타오르고 있다. 현재 흐름을 유지해 리그·ALCE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김천전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왼발 특급 아사니다. 아사니는 안양, 고베와의 경기에서 각 2골을 기록하며 3월에만 무려 4골을 터트렸다. 특히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왼발의 예리함은 날이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하고 있다.

광주가 승리를 자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견고함이 깊어지고 있는 수비진에 있다. 그 중심을 버티고 있는 선수는 올 시즌에 앞서 광주의 유니폼을 입게 된 민상기다.

민상기는 리그·ACLE를 병행하며 변준수, 안영규, 조성권 등 수비 파트너가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베테랑으로서 팀의 구심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고베와의 16강 2차전 대역전극도 민상기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끝내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현재진행형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광주지만, 이정호 감독은 일찍이 다음 경기를 내다보고 있다. 고베와의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단에 집착할 줄을 주며 “4월까지 리그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잘 분석해서 김천전을 준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연일 새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광주가 김천을 제압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모색

도체육회 간담회 40여명 참석

전남도체육회가 올해 전남 스포츠클럽의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클럽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3일 오후 2시 도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스포츠클럽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 방향 및 2025년 사업별 주요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정스포츠클럽 선수반 운영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핵심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개선 방향,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제1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클럽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비 4000만원이 올해 처음 편성된 제1회 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는 오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4~5개 종목이 운영될 계획이다.

참석 대상은 19개 종합형과 17개 한종목 클럽 등 총 36개 스포츠클럽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하는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에 대해 전남 지역 스포츠클럽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체육회는 더 많은 공모 선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도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포츠클럽 운영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제1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아담 율러



나성범



변우혁

‘올러 4이닝 무실점’ KIA, 두산 꺾고 시범경기 2연승

나성범 3타수 2안타 1타점 활약

KIA타이거즈가 시범경기 첫 연승을 기록했다. KIA는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시범경기 5차전에서 두산 베어스에게 4-1 승을 따냈다. 앞선 4차전에서 NC 다이노스에게 17-10 승을 거뒀던 KIA는 이로써 시범경기 2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유격수)-최원준(중견수)-김도영(3루수)-나성범(우익수)-위즈덤(1루수)-최형우(지명타자)-김선빈(2루수)-김태곤(포수)-이우성(좌익수)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새로운 외인 투수 아담 율러가 나섰다. 총 62개의 공을 던진 율러는 4이닝 2피안타

3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율러는 1회말 볼넷 두 개를 내줬지만, 땅볼 2개와 뜬공으로 무실점으로 성공했다. 2회말에는 상대 선두타자 땅볼 이후 후속타자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곧바로 병살타를 만들면서 이닝을 막았다.

KIA는 3회초 선제 득점을 올렸다. 선두타자 박찬호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했다. 최원준 뜬공 이후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은 내야안타를 만들었다. 1사 1·2루 나성범이 중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KIA가 1-0으로 앞서나갔다.

율러는 4회말 뜬공 2개와 삼진으로 삼자범퇴 이닝에 성공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김태곤이 마운드를 이어받은 5회말 상대 선두타자 박준영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만

들면서 경기는 1-1 동점이 됐다.

그러나 KIA는 곧바로 격차를 벌렸다.

6회초 위즈덤과 김선빈의 안타, 김태곤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득점 상황에서 이우성의 땅볼로 김선빈 대주자 홍중표가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7회초에는 선두타자 최원준이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로 출루했다. 김도영 뜬공 이후에는 박정우가 볼넷을 골랐다. 후속타자 홍중표는 땅볼을 기록했고, 그사이 박정우가 아웃됐다. 타석을 이어받은 한준수는 볼넷을 골라내며 2사 만루가 됐다. 득점 찬스를 잡은 변우혁은 2타점 적시타를 폭발시키면서 KIA가 4-1로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양 팀은 9회까지 점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BO 퓨처스리그, 오늘 개막...KIA, 한화와 첫 경기

체크 스윙 비디오판독 시범 도입...챔피언 결정전 신설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가 14일 오후 1시 서산(KIA-한화), 강화(고양-SSG), 이천(LG-두산), 경산(NC-삼성), 상동(KT-롯데) 총 5개 구장의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는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팀당 118경기(상부 120경기)씩 9월 27일까지 총 650경기를 치른다.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1시다. 7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서머리그 기간으로, 혹서기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경기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우천 등으로 경기 취소 시에는 다음날 더블헤더로 편성되며(3월·6월 2일~8월 31일 제외) 해당 경기는 1·2차전 모두 7이닝 경기로 치러진다.

지난 시즌 일부 구장에서만 운영됐던 ABS가 전 구장으로 확대 적용돼, 모든 선수들이 KBO 리그와 동일한 스트라이크 존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퓨처스리그 ABS 운영에는 공개 임찰을 통해 선정된 트랙맨이 추적 시스템으로 사용된다.

또 체크 스윙의 비디오판독을 시범 도입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KBO 리그에서의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임정이 종료된 후, 올 시즌 퓨처스리그의 최강팀을 가리는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신설돼 올해부터 개최된다.

한편 KBO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 중계 편성도 대폭 확대한다. 개막전 이천(LG-두산) 경기를 시작으로 약 120 경기를 tvN SPORTS와 TVING, KBO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